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면직물

촉감의 양호함, 착용감이 좋음, 쾌적감은 코튼이 지니는 큰 매력이다. 또 시원함과 따뜻함이라고 하는 상반되는 특성을 구비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천연섬유가 지니는 자연의 메커니즘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극히 미세한 섬유인 코튼은 특히 흡습성이 높고, 그 때문에 코튼의 내측과 외측에 온도의 차가 생기면 내측의 수분을 취하여 이것을 외측으로 발산하도록 하는 성질이 있다. 이 때 기화열을 뺏기 때문에 전체의 온도가 내려가서 시원함을 가져다 주는 까닭이다. 또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더운 계절에 상쾌하게 입을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코튼이 겨울에 따뜻한 것은 섬유의 구조에 의한 것이다. 옷의 보온성은 원단이 함유하고 있는 공기의 량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코튼은 섬유의 중심부가 마카로니와 같이 중공으로 되어 있어 열전도율이 낮고 열이 방출되기 어려운 점이 특징이다. 또 천연꼬임이 있기 때문에 볼륨감이 풍부하여 공기를 흠뻑 함유한 직물이라든가 니트를 만들 수가 있다.

결국 원단을 기모하기도 하고 파일을 세우기도 함으로써 섬유 내에 훈훈한 공기가 함유되면 여름에 시원한 코튼도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까닭이다.